

거듭나는 명지 새 천년의 비전

승 자 | 명지대 총장

사랑과 창조의 새 천년 명지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앙인·전문인·사회인·세계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지식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강인한 믿음과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참신한 신흥 명문 사학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대학 발전 계획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응비하고 있다.

명지는 제2의 건학이라는 각오로 교육목표를 정비하고 특성화 모형을 설정하여 국내외 우수 교수를 대폭 초빙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신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전 분야에 걸쳐 최우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명지대학교는 대학에 대한 미래사회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한다.

새 천년 명지 비전

지난 반세기 동안 기독교 정신과 실용적 학풍으로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명지대학교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나아가 내일의 선진 한국을 여는 중심 대학으로 명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랑과 창조의 새 천년 명지'의 비전을 명지가 족과 사회에 엄숙히 선포한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지식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응용이 인간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식사회이자 인간성 회복이 요청되는 시대이다.

이에 명지대학교는 새 천년 비전 선포를 계기로 명지교육의 '지식화·세계화·네트워크화', 기독교적 전인교육에 의한 '인간화'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하여 '행동하는 대학·혁신하는 대학'으로서 21세기 선진 한국을 선도하는 책임있는 창조적 지식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배움과 창조' '나눔과 공유'를 통해 명지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동을 강화한다. 명지대학교는 다양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학문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학생과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 사회에 힘이 되는



인재를 배출한다. 나아가 학생의 숨겨진 재능을 계발하고 모험정신을 북돋워 교육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교수의 창의적 개척정신을 배양하여 교육문화의 혁신을 지향한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2000학년도를 맞이하는 모든 명지 가족은 새 천년 비전 선언문을 통해 명지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를 공유하며 학생-동문-교수-직원이 일체가 되어 그 동안 쌓아온 역량을 한데 모아 새 천년 명지의 비전을 구현한다.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

명지대학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교육과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 교육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인격과 교양을 갖춘 기독교 신앙인을 양성하여 21세기 세계 문명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참사랑 실천과 자연친화적 가치관 확립은 폭넓은 교양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 조국 건설과 세계 역사를 선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창조하는 대학

명지대학교는 1948년 건학 이래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 정신으로 명문사학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난 50년간 축적한 역량과 불굴의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창조적 탐구정신을 더욱 고취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창조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젊은 교수진들은 최고 권위의 연구 능력과 확고한 가치관으로 21세기 인재 교육의 표상이 되고 있다. 또한 명지는 최신의 학술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학술 정보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교내의 모든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전산망으로 완비하는 등 합리적인 교육을 펼쳐 정보통신분야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현장실습 기회까지 풍부하여 사상과 기술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21세기를 책임지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혁신하는 대학

명지대학교는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21세기를 맞아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명지 구성원의 탐구정신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과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명지대학교는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인 양성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학문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힘쓰면서 각종 연구 시설 및 제도의 확충과 정비,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개선, 실험과 실기 중심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앞세우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리서치 파크와 리서치 아카데미를 다양화하여 학과별 특성을 살리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 결과 1996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평가와 1997년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정을 받았으며, 대학원 종합평가 1위, 1999학년도 전형방법 다양화 부분에서 전국 2위를 하였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명지대학교가 거둔 성과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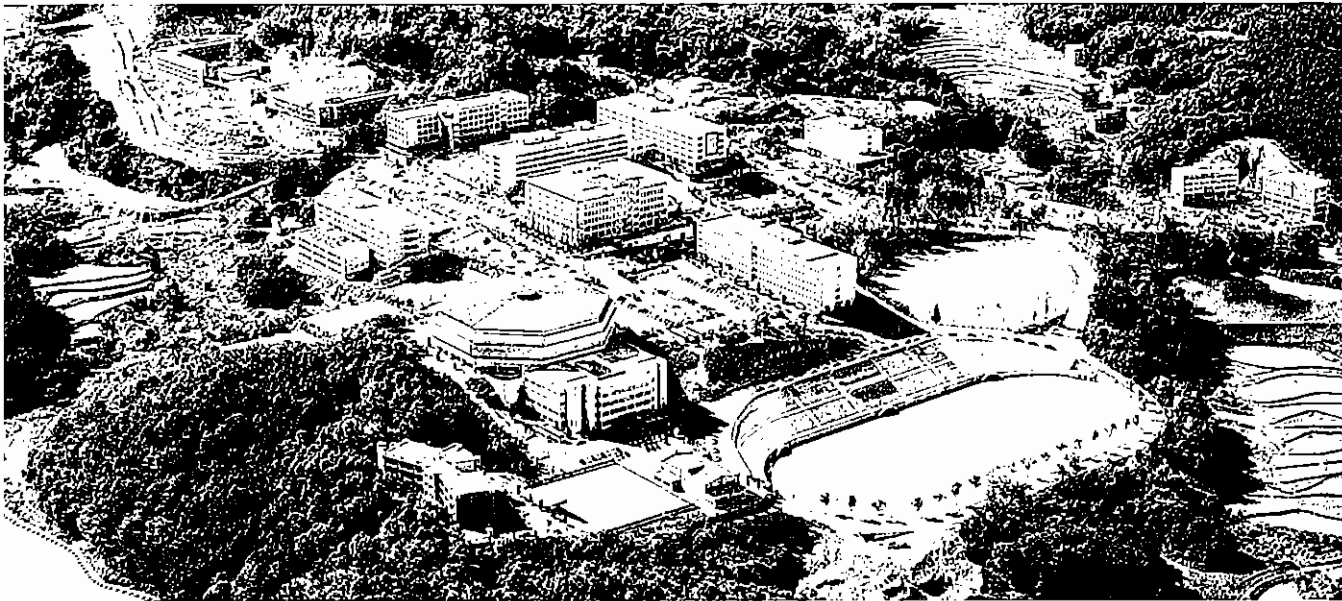
행동하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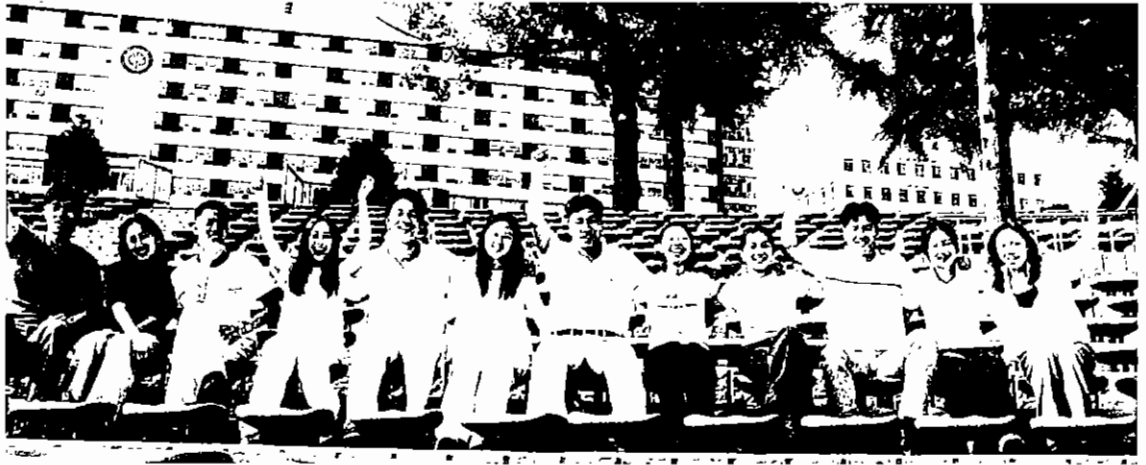
명지대학교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참지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시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재정립하고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지성인을 배출하며,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21

세기형 사회 개혁자를 교육하고자 한다. 근래에 명지대학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 교육연구센터'로 지정 받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청정기술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생산기술원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으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 주관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한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대학으로 지정 받았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과학기술(농생명) 분야'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이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명지대학교는 하늘의 독수리처럼, 지상의 사자처럼, 물 속의 고래처럼 각 분야에서 으뜸을 키우는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굳혀 가고 있다.

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

명지대학교는 자연, 인간, 과학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미래 사회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명지대학교는 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봉사정신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





은 교양인을 배출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활발한 협동 연구로 첨단 과학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 인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한국현대사와 그 맥락을 같이해 온 명지대학교는 반 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 개발의 터전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명지대학교는 50년 역사의 주인공들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4만여 동문들은 정계·학계·재계·방송계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인재로 맹활약하고 있다. 또한 설립자이신 유상근 박사를 시작으로 이영덕 전 총리, 고건 서울시장 등을 거쳐 현재의 총장인 송자 박사까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들을 교육책임자로 두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명지대학교의 이러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양성되고 있는 후진들은 사회윤리 의식과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며 자주적 민주의식을 배양시킴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고 국가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할 사회인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실천하며, 주체성 있는 자주적 세계인의 자세로 해외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보편적 세계 규범을 존중하며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세계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명**